

2023. 12. 13.(수) 조간용

이 보도자료는 2023년 12월 12일 오전 11:15부터 보도할 수 있습니다.



보도자료

담당 부서: 문화본부 문화예술과

문화예술과장

박숙희

2133-2550

사진 없음 사진 있음 쪽수: 4쪽

담당사무관

김은진

2133-2560

일상 속 시(詩) 한 편, 세계인과 함께 읽는다 서울시, 지하철 스크린도어에 해외 시 설치

- 한국을 많이 방문하는 국가의 13개 언어부터 시범 시작, 이후 점진적 확대
- 각국 대사관, 언어권별 교수 및 국제PEN한국본부 등 추천 등을 통해 24편 선정
- 명동, 이태원역 등 외국인 거주 또는 방문 많은 13개 역사 설치

서울시는 지하철 스크린 도어에 게재해오던 시민·시인 공모 시(詩)와 함께 해외 시를 선정하여 설치한다. 서울을 방문하여 지하철을 이용하는 외국인에게 환영의 의미를 전하고 ‘일상 속 시 한 편’을 읽는 뜻밖의 기쁨을 선사하겠다는 목표다. 최근 1년간 한국을 가장 많이 방문한 국가 위주로 13개 언어의 24편 시를 설치한다.

○ 서울시는 시민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시를 자연스럽게 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난 2008년 이후 지하철 스크린 도어에 시를 설치하고 있다. 올해는 시민·시인 시 286편과 함께 지하철 곳곳에 해외 시 24편을 설치한다.

- 언어 : 영어, 중국어, 일본어, 베트남어, 태국어, 인도네시아어, 말레이어, 몽골어, 튀르키예어, 독일어, 프랑스어, 스페인어, 네덜란드어

설치되는 해외 시는 전문가, 대사관 등 여러 경로를 통하여 유명 작품을 추천받아 선정하였다. 선정된 시는 서울을 찾는 외래방문객이 자국어로 적힌

시를 보고 감동을 받을 수 있도록 관광객 및 거주민이 많은 장소 위주로 13개 역사에 설치 예정이다. 각 국의 대사관 위치, 주요 나라와 연관된 장소 등을 고려하여 설치 역사를 선정하였다.

○ 해외 시는 ‘나-하이릴 안와르’, ‘기억하라 - 요한 볼프강 폰 괴테’ 등 세계적으로 유명한 작품들이 설치될 예정이다.

○ 1개 역사 당 기존 한국시와 함께 1~3편 내외의 해외 시를 설치하여 자연스럽게 외국 시를 접하는 분위기를 조성한다. 또한 서울시민들도 해외 시를 함께 즐길 수 있도록 외국어 원문과 한국어를 병기할 계획이다.

- 설치 역사(13개) : 서울, 시청, 종로3가, 홍대입구, 대림, 동대문역사문화공원, 동대입구, 고속터미널, 이촌, 명동, 여의도, 이태원, 한강진역

□ 최경주 서울시 문화본부장은 “이번 해외 시 설치는 외국인에 대한 지하철 서비스가 행선지 안내에서 그칠 것이 아니라 지하철 스크린도어에 해외 시(詩)를 게시하여 서울시가 세계시민을 포용한다는 느낌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”며 “앞으로 외국인 관광객과 서울시민들이 언어장벽 없이 하나가 되어 매력적인 일상을 즐길 수 있기를 바란다”고 전했다.

붙임 1. 설치개요 1부.

2. 2023 해외 시(詩) 선정 작품 1부. 끝.

지하철 스크린도어 해외 시 설치 개요

□ 추진방향

- 한국을 많이 방문하는 국가 언어부터 시범 시작, 이후 점진적 확대 추진
- 작품 내용 및 작가 이력을 면밀하게 검토 후 선정
 - 저작권에 저촉되지 않는 작품으로, 해당국가 대사관 및 관련교수 등 추천, 선정
- 해외 시 원문과 한국어를 병기, 외국인이 많이 방문하는 역부터 점진적 설치

□ 주요 추진방안

- 게시언어 : 영어, 중국어, 일본어, 베트남어, 태국어, 말레이어, 인도네시아어, 몽골어, 독일어, 프랑스어, 스페인어, 네덜란드어, 튀르키예어
- 선정작품 : 다수가 공감할 수 있는 내용 위주로 언어별 3편 내외
 - 선정작당 1면 내외 설치 추진
- 설치장소 : 명동역, 이태원역, 이촌역, 시청역 등 외국인이 많이 방문하는 지하철역
- 게시방법 : 해당 원문과 한국어 번역 병기
- 선정방법 : 언어별 전문가 및 대사관 등 추천을 통해 선정
- 주요 추천사유
 - 자국민들에게 가장 사랑받는 시인의 대표작으로 중등교육 국어교과서에 실린 작품
 - 세계적으로 유명한 작가의 행운과 성공을 기원하는 작품
 - 시민들에게 공감과 상생을 위한 긍정의 힘을 전달할 수 있는 작품
 - 해당 나라의 자연의 아름다움과 풍요로움을 표현하는 작품
 - 사회에 유익한 일과 선(善)을 행하라는 의미가 담긴 작품

2023 해외 시(詩) 선정 작품

○ 총 13개 언어의 24편 시, 13개 역사 설치

연번	언어	제목	작가	설치역(안)
1	영어	이니스프리 호수 섬(발췌)	윌리엄 버틀러 에이츠(1865-1939)	이태원역
2		일	D.H. 로런스(1885-1930)	이촌역
3		나 자신의 노래(발췌)	윌트 휘트먼(1819-1892)	명동역
4	중국어	가을 산에 오르니	두목(803-852)	명동역
5		말 꺼내다 말고	신기질(1140-1207)	홍대입구역
6		산 중에 왜 사냐 묻거든	이백(701-762)	대림역
7	일본어	하이쿠·단카 : 제목없음	마쓰오 바쇼(1644-1694)	이촌역
8			고바야시 잇사(1763-1828)	
9			마쓰나가 데이토쿠(1571-1654)	명동역
10	베트남어	달님에게 물어보네	호 쉐언 흐엉(1772-1822)	종로3가역
11		쭈엔 끼에우(끼에우 이야기, 발췌)	응웬 주(1766-1820)	
12	태국어	프라아파이마니-숫싸컨(발췌)	순턴푸(1786-1855)	이태원역
13		끄리싸나가 캄찬에게 주는 가르침(발췌)	솜뎃 프라 마하 사마나 차오(1790-1853)	
14	인도네시아어	나	하이릴 안와르(1922-1949)	여의도역
15	말레이시아어	나룻배(발췌)	함자 판수리(16C, 생물년도 미상)	한강진역
16	몽골어	나의 고향(발췌)	D.나착고르지(1906-1937)	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
17	튀르키예어	마음을 지으러 왔다네(발췌)	유누스 엠레(1240-1320)	동대입구역
18	독일어	기억하라	요한 볼프강 폰 괴테(1749-1832)	서울역
19		행복이 본연의 뜻을 따라	빌헬름 부쉬(1832-1908)	
20	프랑스어	그리고 미소를	폴 엘뤼아르(1895-1952)	고속터미널역
21		작별	기욤 아폴리네르(1880-1918)	
22	스페인어	나그네여, 길은 없는 것	안토니오 마차도(1875-1939)	한강진역
23		시가 뭐예요?	구스타보 아돌프 베케르(1836-1870)	
24	네덜란드어	네덜란드의 기억	헨드릭 마스만(1899-1940)	시청역